

간호학생의 전공교육 입문경험에 관한 연구

조 계 화* · 조 영 숙**

I. 서 론

1. 문제제기

1948년 미국식 교육체제를 수용한 우리나라 간호교육체도가 오늘날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제도상 큰 발전은 이루었으나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간호교육 교과과정의 변천 혹은 발전을 평가해 본다면 과히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김수지, 1986). 교과과정에 있어 의학적 모델을 토대로 한 질병이나 신체기 관별 접근이 아직도 잔존해 있어 건강과 질병의 연속·체계적 접근이 여전히 부족하며(정연강, 김윤희, 1988), 일반교양과목의 안배가 타 학과에 비해 적으며, 전공위주로 편제된 교과구성상에도 성인간호학의 비중이 다른 전공교과목 보다 훨씬 많은 양적 편중이 여전하다(강규숙, 공은숙, 1997). 또한 전공 교과목의 교육방법에서도 학습성취감을 통한 자긍심과 학습만족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학생경험이 부족하며, 여전히 강의와 실습이라는 전형적인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이성심, 지성애, 1990).

그러나 21세기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어 최근의 교육적 동향은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간호교육의 일부에서도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

혹은 비판적 성찰 탐구(CRI: critical reflective inquiry)학습, 실습에 있어서는 비디오 녹화 후 자가평가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신명희, 1993),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과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 등에서도 다양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간호사면허 국가시험의 방향변화와 학습목표 및 시험문항개발 등이 이런 노력들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간호교육자는 먼저 전공교육에 입문한 학생의 특성과 준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건강과 안녕, 돌봄 개념의 이론을 통하여 임상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간호교육자와 간호학생 간의 상호 역동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평가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주어 교수, 학습과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Martha & MacLeod, 1995; Sharifah,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육평가는 학습이 일어난 후 학생들이 수행한 영역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서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간호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판단력, 분석력 및 통합력과 같은 고등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사고기능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 전통적 평가방법인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시도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경자(1999)는 학생은 학습의 핵심역할을 하므로 교수, 학습평가의 특권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가 평가를 형성하여야만 하고 중점적인 목표는 그들의 생생한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Davies, Murphy and Jordan(2000)에 의하면 간호교육자는 간호실무의 본질을 교육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학문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기대와 어려움 등을 인식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인식 하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최적의 학습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간호학생 관점에서의 전공교육 입문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학습 경험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학생의 생생한 경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얻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심층적이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공교육 입문경험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간호교육 교과과정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학생들이 전공교육을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는가를 이해하고자 함이며 더불어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서술된 본 연구의 결과가 간호교육 교과과정 개발의 서술적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 간호학생은 전공교육 입문 시 어떤 경험을 하는가?

II. 문헌 고찰

과거 한 세기 동안 간호지식은 주로 의학지식에 기초하였으나 현대 간호의 학문적 접근과 연구 및 인간과 환경,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간호 정의의 제시는 간호교육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의학모델에 의한 간호교육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었고 점차 의학

모델에서 벗어나 간호학 고유의 지식체를 중심으로 한 간호교육 교과과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하였다(하영수, 1983). 간호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1960년대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간호이론과 새로운 간호개념인 환자를 단지 신체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고 질병이나 손상에 관한 과학적 지식만을 중요시하였던 전통적인 간호교육과정에서의 탈피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간호교육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전문직 교육이기 때문이며, 오늘날의 간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질병치료보조 중심에서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들로 독자적 간호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간호교육 교과과정은 의학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뚜렷한 기준이나 간호지식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있지 않다. 1970년대에 들면서 간호학회가 발족되어 학문추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간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간호학 교수들에게 외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병원실습도 도제교육에서 벗어나 과학적 이론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이영복, 1991). 이러한 전환기를 맞으면서 동서양의 간호학 교수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와 학문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임상실습교육을 강의실에서의 강의보다 약화시 하므로 이론과 실무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관에서는 학생실습의 책임 한계를 지적하며 졸업간호사의 질적인 전문성과 약화된 실습교육의 질적 강화와 아울러 실습 시 실습지도 교수의 동참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이 실습교육의 미흡으로 기본적인 간호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투철한 직업관과 창의력을 가진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졸업간호사의 질적 수준과 의료기관에서의 요구수준이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간호사의 직업의식과 전문직관의 결여는 이론은 물론 실제 실습현장에서의 교수와 수간호사의 role model을 통해 습득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Benner(1984)는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의 간호수행능력 변화단계의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초보자는 의사결정과 행동의 지침으로 공식을 사용하며, 분석적인 동시에 틀에 박힌 사고를 하고,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행동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초보자는 임상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해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환자와의 상호작용은 거의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Benner(1984)의 간호수행능력 변화단계에 의하면 간호학생들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상황에 대한 사전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간호학생들은 간호본질과 간호상황 등에 생소하므로 전공교육의 학습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함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과 병원 현장과의 연결성을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이론적 지식평가에서는 고득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임상실습 현장에서 이를 연결하지 못하여 무력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박미영, 김순이, 2000; 문미숙, 1998; 고성희, 김기미, 1994). 고성희와 김기미(1994)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학생들이 간호지식의 적용 단계의 첫 경험으로 '긴장', '두려움과 불안', '실망과 회의' 등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Holden and Klingner(1988)는 간호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초보자와 전문간호사의 환자 사정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보자인 간호학생에게서 Benner(1984)가 서술한 초보자의 특징인 공식에 의한 의사결정, 환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의 미숙함 등이 확인되었다.

간호교육의 본질은 간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터득,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간호사 집단의 규범을 학생자신의 행동과 자아 개념에 내재화하는 전문직업 교육 혹은 전문적 사회화 과정이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의 특징은 첫째, 간호업무의 근거가 되는 지식과 기술의 체계화를 강조하고 둘째, 지식과 기술을 구체적인 간호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셋째 간호학생을 자율적이고 독자적 인격을 소유한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Bevis, 1982; Burnard, 1992; McCabe, 1985). 위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의 자율성 신장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그 핵을 이루는 학생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바람직한 교과과정이 설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전공교육 입문경험을 통한 주관적인 체험들을 서술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간호교육의 교과과정을 위한 서술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일종으로 대상자의 관점에서 대상자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이며 일종의 철학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의 목적은 전공교육 입문경험에 참여한 간호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경험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으로 탐구 중에 있는 현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공교육 입문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전공교육의 학습경험에 대한 어려움을 발견하고 앞으로 전공 교육의 교육방법,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등의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와 참여자 보호

본 연구의 참여자는 4년 제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T 대학 간호학생으로, 1학년에서 해부학, 간호학 개론을 이수하고, 2학년 1학기에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을 학습하였으며, 2000학년도 1 학기에 기본간호학 실습과 성인간호학 총론을 수강한 후 교내 홈페이지에 이 과목에 대한 주관적 강의 평가서를 제출한 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학생이다.

성인간호학 총론의 교과내용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일반적 이해, 간호대상자의 일반적 개념, 일반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탐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실제적으로 이 과목과 기본간호학 실습은 학생들이 간호라는 주제하에 이론과 임상현상을 연결하여 간호학 전공교과로서는 처음 접하는 과목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먼저 메일과 전화접촉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면담장소와 시간을 미리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 중간에도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을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녹음자료와 면담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출판을 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더불어 첫 면담 일에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제시하고 다시 한 번 참여동의를 확인 한 후 날인을 받았다.

3. 연구자의 훈련과정

본 연구자들은 1999년 8월과 2001년 6월 두 차례

에 걸쳐 현상학과 근거이론적 질적연구를 수료하였으며 2000년 9월부터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를 수강하면서 계속적인 연구방법론을 연습해 왔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한 학기동안 수업시간을 통한 rapport가 형성된 관계이므로 대체로 학교 내 강의실에서 면담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였으나 만약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학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택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학생과의 친숙한 대화를 진행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환경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표현을 하기 힘들어 글로 적기를 원하는 참여자들은 글로 작성하는 것을 허락했다.

- 간호학 전공교과목을 학습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라는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 아래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경험을 충분히 진술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면담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즉시 직접 기록하였으며 모든 내용을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기술하면서 관찰된 내용이나 주변상황은 [] 로 묶어 기록하였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30분에서 2시간으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1 시간 정도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체로 1인당 3회 이상의 면담이 이루어진 후에야 개념의 포화상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면담을 마감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에 대한 기록을 Colaizzi가 제안한 현상학적 자료분석 과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olaizzi가 제시한 분석단계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녹음한 내용을 면담에서 돌아온 즉시 재생시켜 경청하거나 옮겨 적으면서 각 프로토크의 의미를 추출하였다. :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기술을 심사숙고하면서 읽었다.

2) 의미 있는 진술 (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했다. : '전공교육 학습의 경험'이라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했다.

3)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 참여자의 구체적인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4)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도출된 의미를 끌어낸다. : 여러 맥락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의 판단에 의해 재진술과 형성된 의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5)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군, 범주로 조직하였다. : 주제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래의 기술로 돌아가 이를 준거로 재확인 해 보았다. 또한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의 판단에 의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6)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완전하게 기술하였다. : 모든 주제, 주제군, 범주에 대한 설명적인 통합을 하였다.

7) 본질적인 구조를 진술하였다. : 분석의 전 단계를 통해 도출된 과정과 의미의 기술을 포함하였다.

8) 연구참여자를 통해 본질적인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본질적인 구조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개인이 어떻게 현재의 가능성을 넘어 나아가고 있는가를 밝혀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인간을 돌보는 간호학생들은 직접 간호현장에 나아가 타인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고, 간접으로 경험하면서 심리적 사회적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간호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창조력을 배양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변영순, 1983). 그러므로 간호학생의 전공교육 학습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전공교육 입문경험의 실재를 서술하고 이해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과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전공교육의 입문 경험에 대한 진술은 크게 [실례임] [자부심] [학습하기 힘들] [임상활용에 대한 의문감] [평가에 대한 부적절감] [전공서적에 대한 불만감]의 6 범주로 분류되었다.

[실례임]에 따른 주제군은 “기대감” “생소함” “흥미로움”이며, [자부심]의 주제군은 “뿌듯함” “자신감”이며 [학습하기 힘들]에 따른 주제군은 “학습량 과다”, “암기위주의 학습” “간호 지식의 추상성”, [임상활용에 대한 의문감]에 따른 주제군은 “결핍기식 수업”, “임상적용 불안감” [평가에 대한 부적절감]에 따른 주제군은 “암기능력의 평가” “학문적 평가준거의 결여”이고 [전공서적에 대한 불만감]에 따른 주제군은 “교재의 불충실성” “간호의 독자성 결여” 등으로 분류되어 총 6개의 범주와 14가지의 주제군 31가지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이들 주제군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군인 ‘기대감’은 “배울 내용에 대한 호기심” “간호업무에 대한 기대” 등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 ‘주사만 놓는 것이 간호사의 업무인 줄 알았는데...’ 라고 표현하면서 전공교육 내용과 전공교육을 배운 뒤 간호사가 되어 하게 될 업무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주제군인 ‘생소함’은 ‘용어의 생소함’ ‘내용의 생소함’ 등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처음에 진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받았다” “간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 중심이니, 독자적 간호니 하는 것들을 들으려니...” 라는 표현을 통해 간호교육에 대한 생소한 느낌을 맨 먼저 간호학 전문용어나 그 내용을 통해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주제군인 ‘흥미로움’은 ‘임상현장 흥미’ ‘학습

내용의 재미’ ‘간호사로서의 미래상’ 등 3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전공과목을 배우게 되니까 재미있고...” “내가 간호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임상과 관련된 예를 들어 설명할 때는 정말 귀가 솔깃해졌어요” 라고 표현하면서 간호교육에 대한 흥미로움을 표현하였다<표 1. 범주 - [실례임]>.

네 번째 주제군인 ‘뿌듯함’은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 ‘기초의학과목을 하는 것’ ‘타 과보다 많이 배움’ 등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를 제공한다는 것이...” “생리학, 심리학, 해부학, 약리학 등 다양한 기초의학 과목을 공부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다” “타 과 학생들과는 달리 해야 할 공부가 많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뿌듯해요” 라고 표현하면서 간호교육에 대한 뿌듯함을 표현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군인 ‘자부심’은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등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라는 생각을 했지만 전공을 접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좋은 간호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라는 표현을 하면서 간호학 전공을 학습하면서 경험한 자부심을 표현하였다<표 2. 범주 - [자부심]>.

여섯 번째 주제군인 ‘학습량 과다’는 ‘전공과목의 방

<표 1. 범주 - [실례임]>

| 의미 있는 진술 | 중심 의미 | 주 제 | 주제군 |
|--|-------------------------------|--------------------------------------|------|
| “기본간호학과 성인총론 수업을 하기 전에 무엇을 배우게 될까 궁금하였다” “간호학과에 들어올 때는 주사만 놓는 것이 간호사의 업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처음 접하는 전공교과라 무척 궁금했다” | 무엇을 배우게 될까 궁금했다. | *배울 내용에 대한 호기심 *간호 업무에 대한 기대 | 기대감 |
| “처음에 진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받았다” “간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 중심이니, 독자적 간호니 하는 것들을 들으려니...” |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참석했다. | *용어의 생소함 *내용의 생소함 | 생소함 |
| “전공과목을 배우게 되니까 재미있고 “내가 간호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임상과 관련된 예를 들어 설명할 때는 정말 귀가 솔깃해졌다” | 임상현장과 연계한 전공수업을 재미있게 참석했다. | *임상현장 흥미 *학습내용의 재미 *간호사로서의 미래상 | 흥미로움 |

<표 2. 범주 - [자부심]>

| 의미 있는 진술 | 중심 의미 | 주 제 | 주제군 |
|--|-----------------------------|---|-----|
|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를 제공한다는 것이...” “생리학, 심리학, 해부학, 약리학 등 다양한 기초의학 과목을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다” “타 과 학생들과는 달리 해야 할 공부를 많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뿌듯해요” | 다양한 과목을 많이 배운다는 것이 뿌듯하다. |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 *기초의학과목을 하는 것 *타 과보다 많이 배움 | 뿌듯함 |
|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라는 생각을 했지만 전공을 접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좋은 간호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 학습에 대한 자신이 생겼다. | *간호사의 역할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 자신감 |

대한 학습량' '다양한 기초의학 과목' 등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전공과목의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서 대충 빨리 진도 나가기에 급급했다." "간호 이외에 간호관련 기초의학 과목이 너무 많아서..." 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음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표현하고 있었다.

일곱 번째 주제군인 '암기위주의 학습'은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다' '주입식 교육' 등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특히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주입 및 암기 위주의 학습내용 때문에 지치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학습하기 힘든 경험을 표현하고 있었다.

여덟 번째 주제군인 '간호지식의 추상성'은 '실제성이 부족한 지식' '구체적 상황지식의 결여' 등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많은 내용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간호하는 것이 좋다'라고 뚜렷하게 제시된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수업은 받지만 뭐가 뭔지 몰라 힘들 때가 많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라는 표현을 통해 간호학문의 추상성 자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한 영역임을 표현하고 있었다<표 3. 범주 - [학습하기 힘들]>.

아홉 번째 주제군인 '결핍기식 수업'은 '기초의학 과목의 형식적 교육' '단순지식 교육' 등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해부학을 해도 해부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약리학을 해도 약물 이름만 들어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너무 우스웠다" "사실 이렇게 대충대충 배워 실제 병원에서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

을 통해 학생들은 임상에서 간호를 잘 하려면 간호관련 기초과목이라도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교수님들이 대충대충 짚어만 주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 번째 주제군인 '임상적용 불안감'은 '비실제적 교육내용' '이론과 실무와의 괴리감' 등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이론수업을 배웠음에도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막막하고 해볼 것이 없어 어떨 때는 병원 가서 창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임상현장과 연계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을 확실하고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이론수업을 하면서도 임상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고 있으며 보다 실제적이고, 임상과 연계된 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표 4. 범주 - [임상활용에 대한 의문감]>.

열 한 번째 주제군인 '암기능력 평가'는 '외워야 평가 좋음' '지식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평가 안됨' 등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시험점수를 잘 받으려면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식의 활용이나 이해 정도는 전혀 평가되지도 받을 수도 없다". "간호학은 이해나 적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라는 표현을 통해 평가의 부적절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열 두 번째 주제군인 '학문적 평가준거의 결여'는 '교수의 견해가 정답' '배운 것만 평가대상' 등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얼마나 잘 쓰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업

<표 3. 범주 - [학습하기. 힘들]>

| 의미 있는 진술 | 중심의미 | 주 제 | 주제군 |
|---|------------------------|--------------------------------|----------|
| "전공과목의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서 대충 빨리 진도 나가기에 급급했다." "간호 이외에 간호관련 기초의학 과목이 너무 많아서..." | 학습량이 너무 많다. | *전공과목의 방대한 학습량 *다양한 기초의학 과목 | 학습량 과다 |
| "특히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주입 및 암기 위주의 학습 내용 때문에 지치는 것이 사실이다" | 암기해야 할 것이 많아 힘들다 |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다 *주입식교육 | 암기위주 학습 |
| "많은 내용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간호하는 것이 좋다'라고 뚜렷하게 제시된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업은 받지만 뭐가 뭔지 몰라 힘들 때가 많아요" |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힘들다. | *실제성이 부족한 지식 *구체적 상황지식의 결여 | 간호지식 추상성 |

<표 4. 범주 - [임상활용에 대한 의문감]>

| 의미 있는 진술 | 중심의미 | 주제 | 주제군 |
|--|-----------------------|------------------------------|----------|
| "해부학을 해도 해부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약리학을 해도 약물 이름만 들어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너무 우스웠다" "사실 이렇게 대충대충 배워 실제 병원에서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활용할 수 있게 확실하게 배우고 싶다. | *기초의학과목 형식교육 *단순지식 교육 | 결핍기식수업 |
| "이론수업을 배웠음에도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막막하고 해볼 수 없어 걱정되요" "임상현장과 연계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을 확실하고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 임상연계성이 없어 걱정된다 | *비 실제적 교육내용 *이론과 실무와의 괴리감 | 임상적용 불안감 |

시간에 가르쳐 준 것만 달달 외우면 ...” 라는 표현을 통해 평가에 대한 부적절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범주 - [평가에 대한 부적절감]>.

열 세 번째 주제군인 '교재의 불충실성'은 '의료현실과 맞지 않음' '내용의 산만' '번역이 거칠다' 등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짧은 시간에 장황하게 해석해 놓은 교재로 공부하니깐 우리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현실에 적합한 책이 있었으면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간호를 따라 갈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간호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산만하였다”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글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다” “교재가 미국 원서를 번역한 것이라 일정한 체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반영한 한국적 간호학 교재를 원하고 있으며 번역서에 대한 나름의 비평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 네 번째 주제군인 '간호의 독자성 결여'는 '의학모델의 모방'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독자적인 간호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 간호학 교재의 구성 틀인 의학적 모델 즉 질병 접근적 내용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는 연속적 간호모델과는 맞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범주 - [전공서적에 대한 불만감]>.

이상과 같은 주제군을 중심으로 간호학생들의 전공교육에 대한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들은 2학년 때 간호관련 기초의학과목과 동시에 한 두 개의 전공교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기대감과 생소함 흥미로움 등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공교육에 임하게 된다. 그 후 학습을 계속하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간호에 대한 뿌듯함과 타 과와 비교하여 많은 것을 배우는 간호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경험하게 되는 동시에 학습량의 과다와 암기위주의 학습내용과 간호학문의 추상성이나 간호학 전공서적에 대한 불만감, 평가에 대한 부적절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도 경험하면서 간호지식을 체험하고 습득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염려들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들의 학습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개발을 좀 더 강화시켜 임상적 연계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간호교육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학생들은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는 지식세계에서 선택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숙달될 수 있다(Stephanie & James, 1998). 간호교육은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습득해야 하는 학문이므로 간호학생은 지식의 증가로 인해 폭발되는 다량의 자료로부터 본질적인 내용을 선택하고, 모의 상황에서 발생

<표 5. 범주 - [평가에 대한 부적절감]>

| 의미 있는 진술 | 중심의미 | 주제 | 주제군 |
|--|-------------|--------------------------------------|---------------|
| “시험점수를 잘 받으려면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호학은 이해나 적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 평가방법이 부적절하다 | *외워야, 평가 좋음 *지식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평가 안됨 | 암기능력 평가 |
|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업시간에 가르쳐 준 것만 달달 외우면 ...” | 시험평가준거가 없다 | *교수의 견해가 정답 *배운 것만 평가대상 | 학문적 평가 준거의 결여 |

<표 6. 범주 - [전공서적에 대한 불만감]>

| 의미 있는 진술 | 중심의미 | 주제 | 주제군 |
|--|-----------------|-------------------------------------|------------|
| “짧은 시간에 장황하게 해석해 놓은 교재로 공부하니깐 우리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간호를 따라 갈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나라 간호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현실에 적합한 책이 있었으면 한다” “내용이 산만하였다”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글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다” “교재가 미국 원서를 번역한 것이라 일정한 체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교과 내용이 정말로 간호사로서 꼭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 교재가 적절하지 못하다 | *의료현실과 맞지 않음 *내용의 산만 *번역이 거칠다 | 교재의 불충실성 |
| “독자적인 간호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독자적 간호교육이 부족하다. | *의학모델의 모방 | 간호의 독자성 결여 |

하는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인식과정을 습득해야하고, 교수자는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에 충실히 반응해야 하므로 과정학습의 한 형태인 발견학습이나 학습자에 의해 모방될 수 있는 모형화 학습 등의 활용이 간호교육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한 방편일 것이다(Bevis, 1982). 예를 들면, 간호지식에 따른 간호기술을 과학적 근거 하에 evidence based protocol 들을 개발하고 이를 임상적 모의상황과 연계한 상황모형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개발하여 학생 스스로 지속적인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인 것으로 사려된다.

오늘날 교육과정에 대한 본질적이고 새로운 해석은 간호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의료현실인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되었다. 계속 발전하고 누적된 역사적 사실과 교육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변천과정,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의 교육에 대한 요구의 변화, 그리고 지식에 대한 생각의 변화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자극적 역할을 해주고 있으나 학습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의견들이 더 실제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개념적 지식의 구성요소들인 간호이론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건강요구에 맞는 간호지식체를 유도하고 간호학생의 당면한 관심과 사회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간호교육 과정개발을 시도하여 간호교육의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간호학생이 전공교육을 어떻게 학습해 나가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두는지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생생한 전공교육 입문경험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탐색하고 나아가서 간호학생의 총체적인 전공교육에 대한 경험들을 정립하고 학습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이론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서 Colazzi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간호대학 2학년 학생으로서 기본간호학 실습을 경험하고 성인간호학 총론 이수를 마친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한 내용을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크게 [설레임], [자부심], [학습하기 힘들], [임상활용에 대한 의문감], [평가에 대한 부적절감], [전공서적에 대한 불만감]의 6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설레임]에 따른 주제군

은 “기대감” “생소함” “흥미로움”이며, [자부심]의 주제군은 “뿌듯함” “자신감”이며 [학습하기 힘들]에 따른 주제군은 “학습량 과다”, “암기위주 학습” “간호지식의 추상성”, [임상활용에 대한 의문감]에 따른 주제군은 “임상적용 불안감”, “길잡기식 수업” [평가에 대한 부적절감]에 따른 주제군은 “암기능력의 평가” “학문적 평가기준의 결여”이고 [전공서적에 대한 불만감]에 따른 주제군은 “교재의 불충실성” “간호의 독자성 결여” 등 총 6개의 범주와 14가지의 주제군 31가지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전공교육을 입문하면서 호기심, 생소함, 흥미로움과 같은 설레임을 지니고 있으며 타 과와 비교하여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전공과목의 분량이 다양하거나 광범위한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간호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뿌듯함과 자신감 자부심을 쌓아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교육 전공 입문경험을 한 학부 2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관적 경험을 탐구한 연구이므로 간호교육과정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보다 생생하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고학년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확대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장규숙, 공은숙 (1997). 기본간호학 교과내용 개선을 위한 일 조사연구-간호학 교수와 임상실무교육 간호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7(1), 83-95.
- 고성희, 김기미 (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 59-72.
- 김수지 (1986). 한국간호교육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분석. *대한간호*, 25(2), 48-56.
- 문미숙 (1998).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1), 15-27.
- 박미영, 김순이 (2000).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체험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23-35.
- 변영순 (1983). 기초간호학 교육과정의 방향. *대한간호학회지*, 13(1), 95-98.
- 신명희 (1993). 학습방법의 다양한 연구(1). *연세대학교교육과학*, 42, 65-82.
- 이경자 (1999). 교육을 잘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해석학적 교육과정의 평가. *간호학탐구*, 8(1),

- 이성심, 지성애 (1990). 간호사-환자상호작용 현상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0(1), 61-78.
- 이영복 (1991). 간호사를 위한 직업윤리, *대한간호*, 14(2), 47-50.
- 정연강, 김윤희 (1988). 간호교육 철학 정립 및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간호학회지*, 18(2), 162-188.
- 하영수 (1983). 간호학 개론, 서울: 신광출판사.
- Bevis, E. O. (1982). *Curriculum Building in Nursing*, Mosby, 3rd ed., 74-98.
- Benner, P. (1984). From novice to expert. Adison-Welsley Publishing Company.
- Burnard, P. (1992). Learning from experience : nurse tutors' and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experiential learning in nurse education : some initial fin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y*, 29, 151-161.
- Davies, S., Murphy, F., Jordan, S. (2000). Bioscience in the pre-registration curriculum: finding the teaching strategy. *Nurse Education Today*, 20(2), 123-135.
- Holden, G. W., Klingner, A. M. (1988). Learning from experience: Differences in how novice vs. expert nurses diagnose why an infant is cry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7(1), 23-29.
- Martha, L. P., MacLeod. (1995). What Does It Be Well Taught?: A Hermeneutic Course Evalu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4(5), 197-203.
- McCabe. B. W. (1985). The Improvement of Instruction in the Clinical Area.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4(6), 255-257.
- Sharifah, H. S. (1996). An Overview of Quality Assessment of Medical Education, 4th WHO/AMEWPR, 275-283.
- Stephanie, K. V., James, O. H. (1998). Student-Oriented Learning Outlines: A Valuable Supplement to Traditional Instruction.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9(1), 22-26.

The Study of an Entrance Experience into Major Subject of a Student Nurse

Jo, Kae Hwa* · Cho, Young Suk**

This research was an attempt to find out an entrance experience into major subject of student n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 lived learning experience of student nurse. Method of the study was applied a phenomenological approach used by Colaizzi's analytic technique. Participants were 33 sophomore student nurse from TC University. The investigator conducted participated observations and in-depth unstructured interviews which were audio taped under the permission of student nurse, formulating meanings, themes and theme clusters. Results of the study were revealed 6 categories, 14 theme clusters, and 31 themes. Six categories include "feeling anxious about clinical application", "making superficial class", "evaluation for ability of memory", "deficit of academic evaluation criteria", "insufficiency of textbook" and "deficit for uniqueness of nursing science". This findings confirm the fact that the student nurse's entrance experience was complicated and diversely influenced by their learning experiences.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prove helpful not only in understanding student nurse's entrance experience about their specialities but also in developing curriculum for nursing education.

Key words : Major subject, entrance experience

* Department of nursing Taegu Catholic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Busan Catholic University